

## 청소노동자 휴게·목욕시설 미흡... “개선하겠다”

본교는 교내 곳곳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과 목욕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 본지가 해당 시설을 확인한 결과, 개선되어야 할 점이 발견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규격을 준수하지 못하는 휴게시설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목욕시설은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대기실’이라는 이름으로 설치·운영 중인 총 12곳의 휴게시설은 탐구관·공학관 A동·미래관·상상빌리지에 2곳씩, 우촌관·지선관·상상관·상상빌리지 인근 철공소에 1곳씩 위치하고 있다. 사업주의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1항에 따라 운영 중인 휴게시설들이다. 이외 진리관·학술관·연구관·인성관·공학관 B동·창의관·낙산관 등에는 대기실이 부재한 상태다. 진리관에는 임시 휴게시설로 이용되는 공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관련 법률에 따른 휴게시설은 아니다.

지선관 1층 대기실의 경우 천장 높이가

약 1.7m다. 노동자 휴게시설의 최소 천장높이를 2.1m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1호 1차에 부합하지 못한다. 해당 기준은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사업장에 준수 의무가 있는 법령으로, 본교 또한 해당 기준에 맞는 노동자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본교 미화관리를 담당하는 한재도(자산관리팀) 부팀장은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 자문을 구한 결과, 근로자가 만족하고 노사 간에 합의된 부분이 있다면 기준에 미치지 못한 휴게시설이라도 운영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선관 대기실이 천장높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절한 곳으로 옮기려고도 했으나, 이외 기준들은 모두 충족하고 있고 해당 대기실을 이용하는 청소노동자들도 난방 등 설비 측면에서 만족하고 있기에 그대로 운영 중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탐구관 1층, 미래관 지하 1·2층, 상상관 지하 1층, 상상빌리지 지하 2층의 대기실은

창문이 없거나 막혀 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6호에서는 창문 등을 통해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부팀장은 “미래관의 두 대기실은 창문 대신 환기구구를 설치해 환기가 가능하도록 했고, 지하에 위치한 대기실을 위주로 공기청정기를 들여 놓는 것으로 환기 문제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창의관·인성관의 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는 미래관 지하 2층에 마련돼 있는 대기실을 사용해야 한다. 진리관·학술관 담당자는 탐구관 지하 2층 대기실을, 낙산관 청소를 맡는 노동자는 지선관 대기실을 이용한다. 연구관 담당자 또한 지선관, 상상관, 상상빌리지 등의 대기실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기실을 이용하는 청소노동자들은 일하는 공간과 대기실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모든 건물별로 휴게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연구관을 담당하는 한 청소노동자는 “같은 건물을 청소하는 사람들 간

에 일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대기실이 다르면 서로 소통이 어렵다”고 말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2호 가목에는 근무공간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노동자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부팀장은 이에 대해 “교내 모든 대기실은 법적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 구름다리 등을 통해 건물 간 이동시간을 축소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전했다.

대학본부는 대기실이 주로 지하나 주차장 인근, 건물 입구, 다용도실 내부 등 상대적으로 기피되는 장소에 위치해 있는 점에 대해 ‘공간 부족’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부팀장은 “강의 공간을 개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대기실 공간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학교에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과거 경비실로 사용되던 공간을 재활용하는 등 최대한 대기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목욕시설의 경우 일부 건물은 대기실 내에 세탁기가 함께 갖춰져 있는 등 쾌적한 환경이지만, 노후된 건물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선관 1층 여자화장실 안에 있는 목욕시설은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청소노동자들도 이용하지 않고 있어 방치돼 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환경미화·오물수거 및 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해 세면·목욕·세탁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청소노동자는 “면지를 뒤집어쓰기도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면 몸에 튀기도 해서 계절에 관계없이 목욕시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부팀장은 “지선관 목욕시설 온수 문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번거로운 칸을 뜯어내 온수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탐구관 지하 2층의 목욕시설 또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목욕시설은 물탱크, 온수기, 펌프 등이 있는 다용도실 구석에 가벽으로 설치돼 있다. 한 부팀장은 “탐구관 다용도실 내부의 목욕시설 문제는 인지하고 있었기에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진리관에서 책과 같은 무거운 쓰레기가 나올 때 운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부팀장은 “『문화재보호법』상 진리관은 층고가 높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성 청소노동자를 해당 구역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제시된 문제상황에 대해 논의와 동시에 더 나은 업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한 부팀장은 “대기실이나 목욕시설에서 불만사항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일부 부족한 부분은 있으나,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선관 1층 대기실 문의 세로 길이는 약 1.2m로, 허리를 굽혀야 출입할 수 있다.



▲탐구관 지하 2층 다용도실 안쪽, 가벽으로 설치된 샤워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정성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 잇따른 기숙사 비화재경보, 화재감지기는 이상 無

상상빌리지에서 올해 7번의 ‘비화재경보’가 발생했다. 비화재경보란 실제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경보가 울리는 것을 일컫는다. 비화재경보는 1월에 4번, 2월에 3번 발생했으며 기숙사 입주생(이하 기숙사생)의 불편을 야기했다. 취재 결과, 화재감지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기숙사 관계자와 전문가 모두 비화재경보로 인한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7번의 비화재경보 원인은 모두 상상빌리지 지하 1층 취사실 인덕션 사용으로 인한 연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상빌리지 행정실 측은 인덕션 사용 시 연기가 많이 나는 음식의 조리를 삼가라는 안내를 해온 바 있다. 그럼에도 취사실 연기로 인한 비화재경보가 계속되자 상상빌리지 행정실 측은 인덕션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 방안으로 에어 프라이어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2023년 초까지 상상빌리지에 거주했던 기숙사생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화재경보에 대한 불편을 호소했다. 김영우(사회

과학 2) 학생은 “새벽에 화재경보가 울려 잠에서 깨는 불편을 겪었으며, 혹시 실제 화재일까 봐 비화재경보라는 안내 방송이 나올 때까지 잘 수 없었다”고 술회했다.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점 역시 지적됐다. 허윤석(패션 3) 학생은 “비화재경보 이후의 안내 방송이 상태가 고르지 못해 작게 들리거나 아예 들리지 않는 때도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상상빌리지 행정실 측은 안내 방송을 통해 비화재경보를 공지하는 방식으로 후속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7번 중 1번은 내부 사정으로 누락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임진경(행복기숙사 유한회사) 행정실장은 “안내 방송이 잘못됐으면 행정실로 수리 신청을 하면 된다”며 “학생이 수리 신청을 하면 행정실에서 즉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본교의 상황에 대해 화재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움을 표했다. 고강섭(서울소방재난본부 검사지도팀) 반장은 “취사실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로 인해 화재감지기가 반응하기도 하는데, 이는 감지기가 제 기능을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찬영(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안전불감증이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비화재경보는 부정적으로 간주되며, 실제로 안전불감증이 만연화 되면 화재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상상빌리지 행정실 측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화재경보로 인해 안전불감증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행정실장은 “기숙사는 안전을 가장 우선시한다. 후에 불이 났을 때 학생들이 방 안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인덕션 금지 조치를 빠르게 추진했다”고 전하며 “3월 중으로 소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현진 기자 glentravel1081@gmail.com



시작의 설렘 ‘2023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하 오티)’이 낙산관 대강당 및 교내 전역에서 대면으로 실시됐다. 1월 16일과 18일, 19일은 수시 신입생을 대상으로, 2월 22일은 정시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오티는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오티는 일괄 13시 30분에 시작해 ▲등록 ▲이동 ▲개식사 ▲축하공연 ▲대학생활 안내 ▲단대별시간 및 캠퍼스탐방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오티에 참가한 학생은 비교과포인트 10pt와 상상부기 예코백 및 상상부기 텀블러로 구성된 신입생 웰컴키트를 제공받았다. 정시 오티에 참여한 이준성(IT 1) 학생은 “오티에 참석해 잘 모르던 학교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2023학년도 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지난 23일 미래관 DLC에서 진행됐으며,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는 ‘2023 신입생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

박희진 기자 furi1120@naver.com

# 대다수 학생, 학생식당에 '만족'한다

## 산들푸드 측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대면수업 등 교내 활동을 위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학생들의 창의를 지지하 1층 '학생식당'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생식당 학생 만족도 조사(이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구글폼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본교 재학생과 휴학생 등 총 713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는 학생들에게 ▲맛 ▲메뉴 ▲가격 ▲위생 ▲시설 ▲운영시간 ▲주문 과정 ▲음식 대기 시간 ▲직원의 친절도 등에 대해 물었다.

학생들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산들푸드'가 운영 중인 학생식당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식당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14.2%)', '만족(46.3%)'의 답변이 이어지면서 과반이 넘는 학생이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은 각각 1.3%, 10.9%에 그쳤다.

여기에는 음식의 맛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학생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맛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총 69.3%였다. 저렴한 가격도 학생식당을 찾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생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가격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항목에 총 64.8%의 학생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시중 음식점과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성능비(가성비)가 만족스럽다.(72.7%)'가 압도적인 이유로 꼽혔다.

또한 학생들은 주문 과정과 대기시간이 짧아 빠르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식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의 주문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총 79.9% 학생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키오스크를 통해 빠르게 주문할 수 있다.(89.1%)가 주된 이유였다. '웨이팅' 앱을 통해 빠르게 주문할 수 있다.(33.3%), '카드 결제만 가능해 진행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26.5%)'가 뒤를 이었다. 이에 더해 '학생식당의 음식 대기시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항목에서도 67.2%의 학생이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유는 '사람이 붐비는 시간에도 대기시간이 적절하다.(72.7%)'가 우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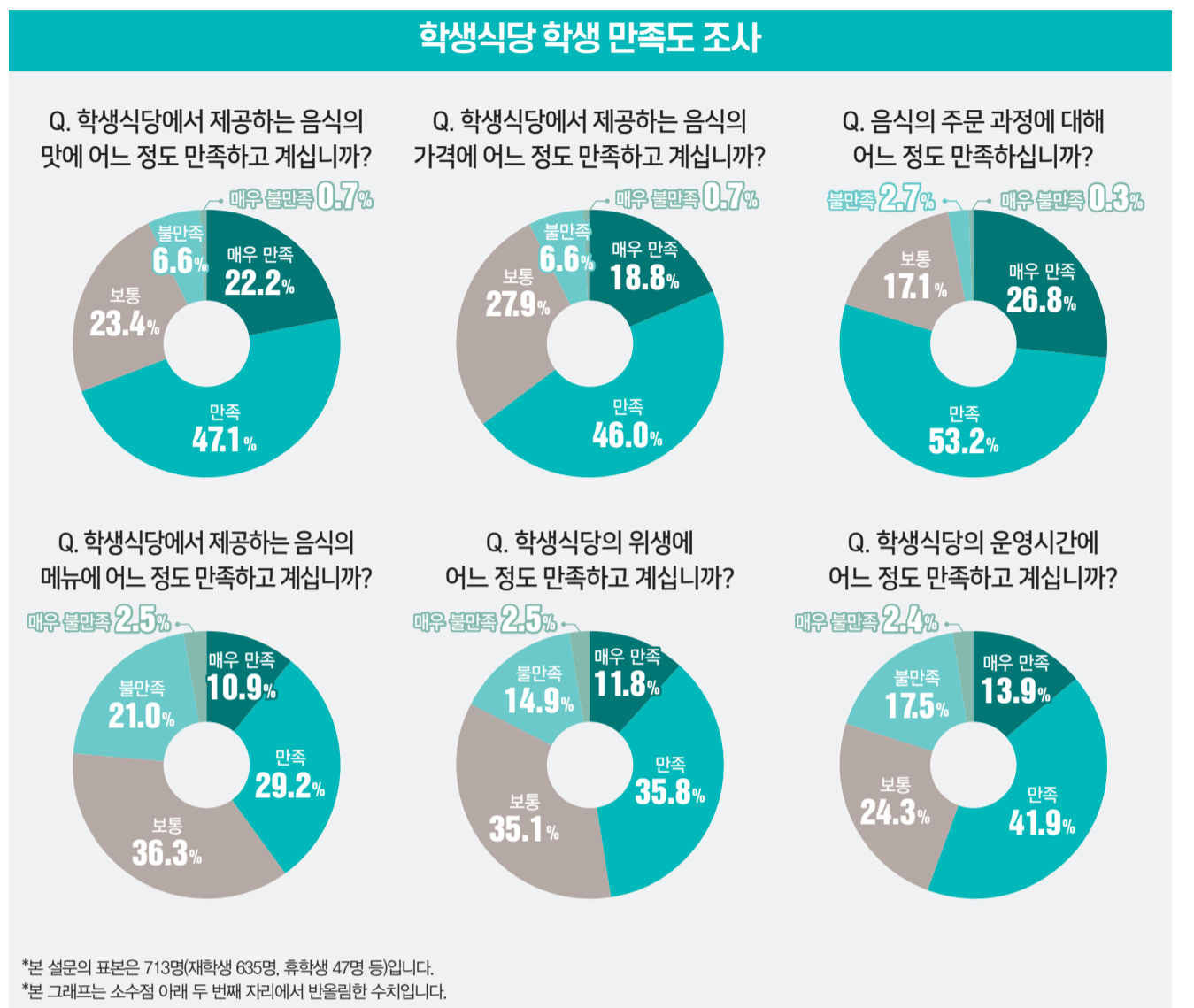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난해 새로 도입된 애플리케이션 '웨이팅'이 학생식당을 빠르게 이용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웨이팅은 모바일로 주문·결제 가능한 앱

이다. 김준기(컴공 3) 학생은 "전에는 주문 후 음식을 수령하기까지 15분에서 20분도 기다린 적이 있으나 웨이팅을 이용한 후에는 미리 주문해 5분 이내에 음식을 받을 수 있었다"고 경험을 전했다.

학생식당의 시설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학생식당의 시설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항목에 대해 '매우 만족(10.9%)', '만족(38.4%)'이 기록됐다. 절반가량의 학생이 만족을 표한 데에는 '학생식당의 교내 위치가 적절하다.(69%)'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보통(39.8%)', '불만족(10.1%)', '매우 불만족(0.7%)'이었으며, 불만족하다고 답한 학생들은 '테이블과 의자가 불편하다.(63.6%)'를 대표적인 사유로 꼽았다. 이외에도 이호영(인문 3) 학생은 "음식을 받으러 가거나 식기를 반납할 때 앉아있는 학생과 부딪혀 불편할 때가 많다"며, "냉난방의 경우에도 여름에는 적절하지만, 겨울에는 출입구 쪽이 매우 춥다"고 의견을 밝혔다.

학생식당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도 높은 점수가 부여됐다. '학생식당 직원의 친절도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항목에 71.7%가 만족하다고 답했으며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0.6%에 그쳤다.

반면, 메뉴와 관련된 질의에는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학생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 메뉴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항목에 40.1%의 학생이 만족한다고 응답했지만, 불만족한다고 답한 비율도 23.6%를 차지했다. 만족한 이들은 '메뉴의 다양성이 확보돼 있다.(62.6%)'와 '음식 메뉴의 수가 충분하다.(57%)'를, 불만족한 이들은 '메뉴의 다양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81.5%)', '음식 메뉴의 수가 부족하다.(76.8%)'를 선택했다. 동일한 메뉴의 종류와 수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이다. 해당 질의에 불만족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유현호(컴공 3) 학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하던 메뉴들이 사라지고, 상시 메뉴가 아니라 이 이유로 특정 계절에는 맛볼 수 없는 메뉴들이 생겼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산들푸드 측은 제공하는 메뉴의 수를 증원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연(산들푸드 한성대1호점) 영양사는 "메뉴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에 한 번씩 관련 회의를 통해 교체 중이다. 인력난과 식재료값 상승으로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메뉴를 유지하기는 현재 상태에서 힘들다"면서도 "학기가 시작되면 방학 때보다는 메뉴가 1~2개



가량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족하는 학생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분야도 존재했다. '학생식당의 위생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는 47.5%의 학생이 만족했으나, 17.4%의 학생들은 학생식당의 위생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식사를 하는 테이블과 의자, 바닥 등이 깨끗하지 않다.(96%)'가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으며, '수저 등을 비롯한 식기류가 위생적이지 않다.(26.6%)'가 뒤를 이었다. 쟁반과 반찬 코너의 위생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윤지(사회과학 2) 학생은 "쟁반 위에 물병만 아니라 비위생적인 물질이 묻어있는 경우도 많았다. 반찬 코너 위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서 김치의 고춧가루 등이 묻어있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다"고 전했다. 산들푸드 측은 위생에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위해 구인 중이라고 전했다. 전 영양사는 "현재 테이블과 반찬 코너 등은 아침과 점심 이후, 그리고 마감

전에 청소하고 있다. 인원이 부족해 학기 중에 일할 도우미를 뽑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된 운영시간으로 인해 식사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학기 중 학생식당의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브레이크 타임은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이다. 학생식당의 운영시간에 '매우 불만족(2.4%)', '불만족(17.5%)'한 학생들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70.4%)', '주말에 이용할 수 없다.(24.6%)', '조식이 필요하다.(24.6%)'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박유미(동양화 4) 학생은 "학과 특성상 밤까지 남아서 작업을 하다 보면 저녁을 먹어야 하는 일이 잦아서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도시락을 싸 온다"고 말했다. 산들푸드 측은 방문 인원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전 영양사는 "일반적으로 점심식사를 오전 11시에서 오후 2~3시까지 하고, 3시 30분 이후로는 방문 인원이 현저히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간 시간대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적어 운영시간을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도 들어왔다. 현재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관련법에 의해 현재 초·중·고등학교 급식에만 의무적으로 표기되는 사안이다. '학생식당 음식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91.2%가 '예'로,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전 영양사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진행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산들푸드 측은 학생식당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영양사는 "학생식당을 많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자연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2023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 학군사관(ROTC) 모집안내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만 20 ~ 27세 이하인 남·여) ※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정시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학군 사전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23년 3월 2일 ~ 4월 5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http://www.armyofficer.mil.kr) [지원자 접수]란 이용
- 일정 - 필기고사 : 4. 15.(토), 합격자 발표 : 5. 4.(목)
  - 면접평가 : 5. 22(월) ~ 6. 9.(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8. 14.(월)

※ 세부사항은 '23년 모집요강' 참고 바랍니다.

- 문의처 : 지원대학 학군단

대한민국의 리더  
미래육군의 중심

### ROTC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http://www.armyofficer.mil.kr)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s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 사학법인, 장애인 고용의 불모지였다

장애인 고용률 '2%의 벽' 견고한 사학 부담금으로 의무 모면한다는 지적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 방안 다

대학은 장애인에게 열려 있는 공간일까. 많은 대학이 교내에 경사로, 점자판 등을 설치해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증진하고, 오디오북 등을 확충해 장애인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립 대학과 그 학교법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수십억 원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고용 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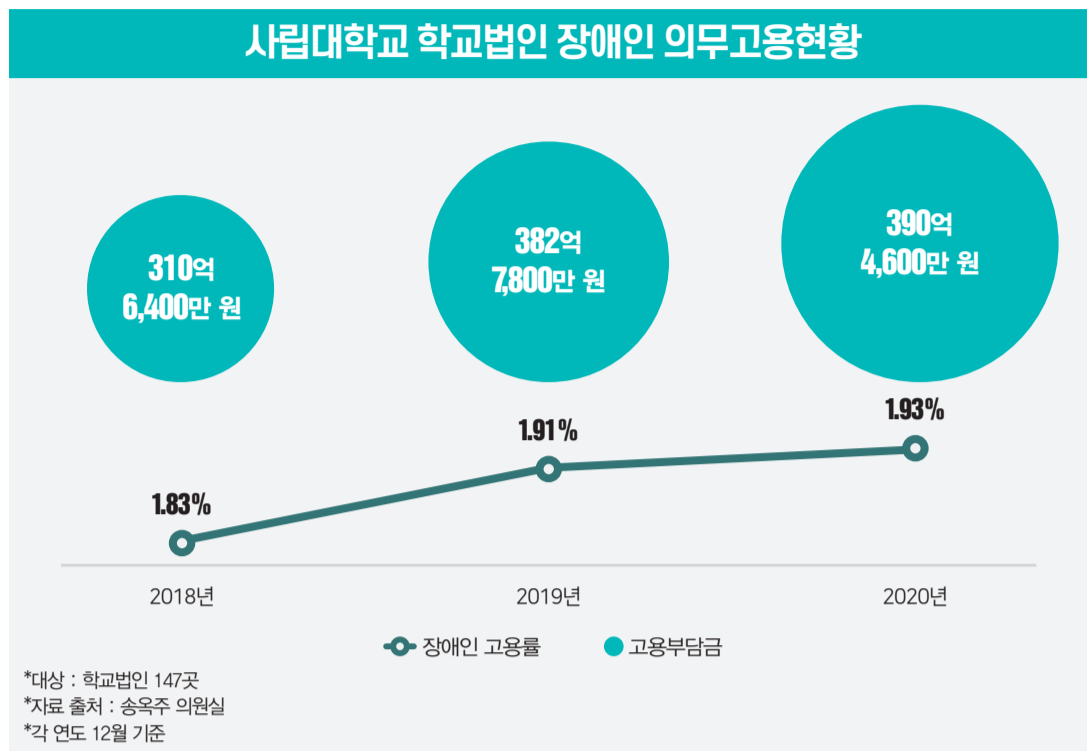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 총수의 3.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동법 제33조는 3.1%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매년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이 능력껏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재할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에 제정됐다.

전국의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매년 지불하는 고용부담금은 수백억 원대에 이른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립 대학 학교법인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고용부담금은 2016년 약 223억 3,700만 원에서 2020년 약 390억 4,600만 원으로 계속 증가해 왔으며,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기준 1.93%로, 5년 동안 2%를 밑돌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기업체를 정리한 명단에 사립대학 관련 사업장이 대거 포함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3.1%의 절반인 1.55%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고용 노력을 다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 공표'에는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13개와 사립대학의 산학협력단 10개가 이름을 올렸다.

학생들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학년 재학 중인 양희원 학생은 "전체 사립대학이 약 300억 원을 고용부담금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며 "대학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휴학생인 주상현(20) 씨는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고용부담금의 규모가 이렇게 큰 것은 알지 못했다"며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이 장애인 고용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해당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수사회에서도 개선을 주문한다. 전지혜(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라며 "대학은 이윤을 창출하는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르기에 당연히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동욱(한경국립대학교 사회복지



지과) 교수는 "학교법인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다수의 사립대학과 그 학교법인은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과 연구가 주요 업무인 만큼 교원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데,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수가 현저히 적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교직원의 주요 업무는 학생·교원의 민원 응대이기에, 직원으로서의 장애인 고용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소속된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관계자는 "학위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을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세분화된 학문 분야별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도 어려운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이와 같은 입장이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반론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는 어디에나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반박이다. 전 교수는 "장애를 가진 박사 학위 소지자도 생각보다 많고, 이들이 임용의 기회를 얻지 못해 감사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학교법인이 장애인인 비장애인만큼 일을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를 낭비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학교법인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실제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과 고용부담금을 단순 비교해 보면, 고용부담금은 대학법인 입장에서 비교적 적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2020년 기준 학교법인 중에서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지불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약 8,004억 2,800만 원 가량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약 67억 8,4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0.8%가량을 납부한 것이다.

학교법인이 경증장애인을 주로 고용하고 중증장애

인의 채용을 기피하는 것 또한 문제로 꼽힌다. 물론 이는 학교법인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체가 개선해 나가야 할 지점이라 여겨진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학교법인의 관계자는 "직원이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발생한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그것이 또다른 어려움으로 다가온다"고 전했다.

학교법인을 포함한 기업체가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고용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는 지원받은 고용관리비용을 통해 중증장애 노동자의 업무 이행에 도움을 주는 '작업지도원'을 선임·배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직업용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김현종(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실장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환경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며 "학교법인이 선입견을 갖지 않고, 지원책을 활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면 중증장애인의 고용도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미 몇몇 학교법인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방안으로 선택했다. 모회사, 즉 학교법인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해당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했다고 간주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 아래에 설치된 자회사에 대학의 교육환경 조성 업무를 용역의 형태로 맡긴다. 김 실장은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설립한 '경희매니지먼트'는 교내 카페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직무를 발굴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고용부담금 산정 체계의 변화를 통해 학교법인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면피하는 꼼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해결책도 제시된다. 월 단위로 정해지

는 고용부담금은 '사업장이 해당 월에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총 수에서 '사업장이 해당 월에 고용한 장애인의 수를 뺀 값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고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에서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많이 고용할수록 적게 지불하도록 정해져 있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201만 580원)과 동일한데, 의무고용률은 준수하지 못했지만 고용의무인원의 3/4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의 부담기초액은 120만 7,000원으로 책정된다. 학교법인이 고용부담금을 '적당히 아낄 수 있는' 정도까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 교수는 "2018~2020년 기준 학교법인의 장애인 고용률 평균인 1.8~1.9% 수준으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사업장의 부담기초액은 크게 줄어든다"며 "부담기초액을 고용인원수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정시켜야 학교법인이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컨설팅을 통해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을 홍보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법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법인의 장애인 고용 독려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을 안내하고 고용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전 교수는 "컨설팅의 제도화를 통해 개별 학교법인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방향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평가에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을 평가 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가 학교법인이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된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삭감하고, 그 삭감분을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거나 초과 달성한 대학에 지급하는 방안이다. 김 실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평가에는 이미 장애인 고용의무 항목이 들어가 있다"며 "대학 평가에도 해당 항목이 신설된다면 학교법인이 적극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학교법인이 장애인 직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고용 증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 실장은 "국내 카드사 등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지체장애인·시각장애인 직원이 다수 근무하고 있고, 약성 민원 등도 처리하고 있다"며 "사례에 비춰 봤을 때 대학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장애인 고용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역설했다.

대학은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기에,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 교수는 "대학은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 고민하는 장이 돼야 한다"며 "장애인과 함께 일하고 공부하는 모습이 대학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노인 등이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개발된 모든 기기를 통칭하는 말

정성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 정기자와 나누는 정치 수다

# 시민·당원 의견 모으는 '깔때기' 필요한 정당

TV만 켜면, 신문만 펼치면, 쏟아지는 정치 소식을 100%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 없는 정치·법적 용어들이 난무하고, 어제의 소식을 알아야 오늘의 소식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안을 놓고 무궁무진한 주장을 내놓기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란 더 어려운 일이다. 정보의 수요자 입장에서 '정치소식 길라잡이'가 필요한 시점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예정이다. 당대표 후보 간에 벌어지는 설전, 각 후보의 당선 가능성 등 수많은 소식이 쏟아지는데, 정작 '전당대회'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람은 없다. 전당대회가 무엇인가에 이렇게나 스포트라이트가 쏠리는 것일까.

'전당대회(全黨大會)' 은전환 전 자를 쓴다. 한 정당의 모든 일원이 모이는 자리라는 뜻이다. 전당대회는

정당의 최고결기구다.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당의 헌법'인 당헌 개정, 특정 사안에 대한 당의 의견인 당론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결 등이 이뤄지는 자리다. 그러나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처럼 대규모의 정당에서, 전 당원이 한 자리에 모여 표결을 진행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렇기에 정당은 '대의원'을 두고, 이들이 당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 당원이 아닌, 대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전당대회는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통상 우리나라에서 전당대회라고 이야기하면 당대표 또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자리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 전당대회의 또다른 역할인 당론과 당의 정책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어떤 기구에서 대신하고 있을까. 당 소속 국회의원의 모임인 '의원총회'나 당대표와 더불어 당의 최종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최고위원들의 모임인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이뤄지

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고위 당직자나 공직자로 구성된 회의체보다, 더 많은 의견이 오갈 수 있는 전당대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임성호(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의 강령이나 구체적인 의제 등 당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결정도 전당대회의 대단히 중요한 역할임에도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앞서 지적된 것처럼 모든 당원이 참석하는 전당대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전당대회보다 작은 조직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각 지역구별로 정당이 결성한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직이 작을수록 당원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경미(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에 대한 당원의 참여도를 높여려면 당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소통의 구조가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속 작은 당원 조직에서의 의사결정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당대회나 당원협의회, 지역위원회와 같은 당내 조직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의견수렴 과정은 충분히 거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여론조사나 정당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활용하면 된다는 말이다. 특히 여론조사와 같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의견수렴 과정은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준한(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은 유권자 또는 당원의 요구에 반응성이 높아야 한다"며 "SNS,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당의 의견수렴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 방식은 정당이 놓쳐서는 안 되는 지점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소지가 없다. 이 교수는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원의 의견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요식 행위가 된 부분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성혁 기자 normalhyeok0927@hansung.ac.kr



“요즘 애들은 왜 그래?” 어느 세대나 그랬듯, 현 젊은 층도 자주 듣는 물음이다. 진짜 요즘 애들은 왜 그럴까? 그래서 알아봤다.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달려드는 기자가 그 속으로 뛰어 들었다. MZ세대의 대표주자인 기자를 따라 청년이 열광하는 것을 파헤쳐보자. 첫 만남에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말, “넌 MBTI가 뭐야?” MBTI는 4가지 선호지표(E-I, S-N, T-F, J-P) 척도를 통해 성격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하는 검사다. 아주 오래전 개발됐던 성격유형 검사인 MBTI는 2020년쯤 그 이름을 널리 떨치기 시작했다. 끝없이 확장되고 있는 MBTI 세계관! 우리가 알고 있던 검사에 대한 진실과 우리 주변을 둘러싼 MBTI를 A to Z 탐방한다.

박희진 기자 furi1120@naver.com

# MBTI가 청년을 덮쳤다!

## 같이 보이지만 다릅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란 어색한 첫 만남에 빠질 수 없는 대화 소재가 됐다. 누구나 한 번쯤이라도 해 본 무료 MBTI 검사, 과연 믿을 만할까?

사실 우리가 '16Personalities' 사이트를 통해 알고 있는 무료 검사는 '네리스 유형 탐색기(NERIS Type Explorer)'라는 명칭의 검사로, MBTI 검사가 아니다. '진짜' MBTI는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Carl Gustav Jung)의 심리유형론을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유료로 제공된다. 검사를 진행하며 유심기 살펴보면 알겠지만, 16Personalities 사이트 내 그 어디에서도 MBTI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진행 방식도, 문항의 수도, 결과에 대한 설명도 MBTI 검사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무료 검사의 경우, '네리스 애널리틱스 유한회사(NERIS Analytics Limited)'라는 영국의 회사가 제작했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오역되는 경우가 많아 항목의 정확성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ASSESTA 심리평가연구소'(이하 어세스타)는 오역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무료검사가 사용자에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문항도 여과 없이 전달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무료 검사와 MBTI 검사는 사용자가 해당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MBTI 검사는 검사 시작 전, 후로 검사를 통해 나오는 유형이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제시한다. 또, 검사 결과가 가변될 수 있는 부분임을 명시한다. 하지만 무료 검사는 그렇지 않다. 무

료 검사의 경우 결과로 도출된 유형이 사용자의 고정적인 성격인 것처럼 서술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모든 사용자의 성격이 16가지로 분류되는 것처럼 극단적인 해석이 야기될 수 있다. 무료 검사만 진행한 사용자가 자신의 결과로 나온 유형의 완전히 과몰입하게 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어세스타는 무료 검사가 단지 MBTI의 이니셜 코드만 차용한 것으로, 기존의 의도대로 개념이 내포한 의미를 해석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만약 자신이 무료 검사만 경험해본 MBTI '과몰입'했다면 정식 MBTI 검사를 받아보길 추천한다. 한국인 맞춤 MBTI 검사를 만들어낸 어세스타 홈페이지의 'MBTI 사람의 발견' 서비스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가격은 2만 4천 원이며, 93개의 문항으로 이뤄진다. 검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다. 상담 기관에 방문해 검사와 해석 상담을 함께 받는 방식도 존재한다. 일부 대학 내 상담 센터에서 무료로 정식 검사를 제공하기도 하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검사를 받아보면 알게 될 테다. 나의 '진짜' MBTI 유형에 대해.

## 어디에서나 찾아보세요

할자로만 존재하고 사라질 줄 알았던 MBTI는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평소 SNS를 둘러보다 보면, MBTI와 관련한 오프라인 콘텐츠를 경험하고 인증하는 글이 종종 보인다. MZ세대의 대표주자로서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여러 MBTI 콘텐츠 중 '맥주 MBTI'와 'MBTI 운세', 그리고 'MBTI 떡볶이'를 만나러 다녀왔다.

나만의 맥주 취향을 알아볼 수 있는 '맥주

MBTI'를 체험하러 복층에 위치한 홈브루하우스로 향했다. 맥주 MBTI는 8문항으로 이뤄진 간단한 검사였다. '어떤 음악을 들으면 맥주를 마실까?'라는 문항에 재즈, 록 밴드, 올드팝, 라디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질문들이 제시됐다. 검사 후에는 한 장의 엽서가 제공된다. 결과를 보여준 엽서는 사용자의 성격과 해당 맥주가 잘 어울리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다. 맥주 MBTI 검사는 5분이 채 걸리지 않은 시간으로 성격과 맥주 취향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나 새로운 체험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 알아갈 수 있구나, 청년들이 관심을 쏟지 않을 이유가 없는 듯하다. 단순히 맥주만 마시는 게였다면 나를 알아가는 과정과 같은 경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홈브루하우스의 신동찬 매니저는 "신선하다는 분위기가 많았다"며 "맥주 MBTI 체험을 통해 나에게 어울리는 맥주를 추천받고, 그 결과가 잘 맞아 좋아하는 경향이 크다"고 답했다.

대학로 한 곳에서 MBTI 운세 뽑기 기계가 모여있는 가게를 찾았다. 운세 뽑기 기계는 주로 '띠나 별자리' 등으로 구성되곤 하는데, 이젠 MBTI가 등장했다. MBTI는 총 16종류이니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더불어 MBTI 운세는 띠나 별자리를 기준으로 한 기계처럼 내가 뽑아야 하는 기계가 '항상' 고정돼 있지 않다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MBTI는 환경과 사회적 요구 등에 의해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늘은 INTP였던 사람이 내일은 ESFJ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청년들에게는 일종의 해방감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사진: 박희진 기자

태어나는 순간 정해져 바꿀 수 없는 띠 혹은 별자리와는 다르니 말이다.

운세를 뽑아보면 가장 상단에는 MBTI 유형에 대한 설명이, 나머지는 MBTI와 관련된 직장운, 건강운, 연애운 등이 적혀있었다. 그러나 그저 북북북으로 나오는 운세 결과도 MBTI와 점목하니 더욱 그럴싸하게 여겨지는 느낌이다. 평범한 운세에 MBTI라는 콘텐츠가 더해져 나에 대한 공감과 미래를 점쳐보는 것이 동시에 가능해졌다. 즐길거리가 두 배가 됐다.

MBTI 모양의 떡이 있는 떡볶이집도 존재했다. 사실, '떡 모양 하나로 MZ세대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방문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테다. 해당 떡볶이집을 방문한 고객들은 MBTI 떡 모양을 고르는 것

부터 시작한다. 지글지글 떡볶이가 완성되고 앞접시에 떡 모양을 이리저리 돌려 여러 MBTI 유형 모양의 배열을 완성한다. MBTI는 먹는 순간에 하나의 '놀이'가 됐다. '행이니까 행 먹어야지', '감성 좀 늘어나게 F를 먹자'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떡볶이를 먹으며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MBTI를 주제로 떠돌다 보면 어느새 상대를 조금 더 알아간 느낌이 든다. '아,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가끔은 이해되지 않는 행동도 상대의 MBTI 유형 성격을 생각해 보면 유쾌하게 납득될 때도 있을 테다. MBTI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MBTI만큼 상대를 가늠하는데 빠른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청년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MBTI를 숨 쉬듯 활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MBTI를 첨가해 만든 콘텐츠는 성격을 알아가는 것을 넘어 새로운 취향을 발견하는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나도 알지 못했던 나의 선호를 찾을 수 있구나! 그래서 청년은 그렇게 꾸준히 MBTI에 열광하고 있는가 보다.



▲기자가 정식 MBTI 검사를 구매해 진행했다.



▲복층에 위치한 홈브루하우스에서 맥주 MBTI를 체험 중이다.



▲기자가 대학로에서 MBTI 운세 뽑기를 하고 있다.



▲MBTI 떡을 활용해 만든 떡볶이의 모습이다.

## 시대는 가사를 타고

# 음악에 비친 '나', 자기애를 앞세우다

“내 장점이 뭐지 알아? / 바로 솔직한 거야” 아이돌 그룹 IVE의 히트곡 〈After LIKE〉의 킬링파트 중 하나다. IVE는 〈ELEVEN〉과 〈LOVE DIVE〉 등 '자기애(自己愛)'를 표현하는 곡들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년층이 대중음악의 주 소비층으로 떠오른 시기는 1970년대였다. 당시 청년들은 서구식 문화의 영향을 받은 포크 음악과 록 음악을 선호했다. 서정민감 대중음악 의견가는 “1970년대 청년들은 직접 자기의 노래를 쓰고 부르면서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음악을 통해 전달하는 세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신 정권이 대중음악 탄압을 강화하면서 당시 청년들이 즐기던 음악은 침체를 맞이했다. 이후 1980년대는 가수 조영필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 음악이 선보여지던 시기다. '3S 정책'을 펼친 전두환 정권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중음악이

활기를 띠었으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댄스음악도 이 시기부터 본격적인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게 된다.

급격한 변화 속 '나'라는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첫 세대는 바로 1990년대의 'X세대'다. '신세대'로도 불린 X세대는 1970년대에 태어나 경제 호황과 세계화 등의 흐름 속에서 자라났다. 더불어 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도 완수돼 가던 시기로, 정치·사회적 억압에서 벗어났다. 이들은 기성세대와 자신들을 분리하고 개성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오히려 음악 칼럼니스트는 “X세대는 개성을 중시한 최초의 세대였다. 개인주의가 떠오르게 되는 시기로 남들과는 다른 개성을 추종했고 이는 곧 대중음악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권현석(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당시 제한되었던 정치·문화적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X세대는 개인의 정체성을 발견해 나갔다”고 첨언했다.

그래서인지 1990년대에는 댄스와 힙합 멜로디에 '나 자신'이 중심 키워드로 가사에 직접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는 “이제 그런 가르침은 땀 / 이 시꺼먼 교실에서만 내 젊음을 보내기 아까워”라며 당시 청소년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또한 DJ DOC의 〈DOC and 춤을...〉은 “사람들은 의식하지 말아요 /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 내개성에 사는 이세상이예요 / 자신을 만들어 봐요”라며 개인의 개성을 직접적으로 강조했다. 양재영(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전공) 외래교수는 “개인적인 감성이나 욕구를 표현하고 싶었던 X세대의 감성과 맞아떨어지는 음악이 나오면서 서태지와 아이들 등이 그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2000년대에는 자기애를 주제로 한 음악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이효리의 〈10 Minutes〉는 “Just One 10 MINUTES /

내 것이 되는 시간 / 순진한 내용에 속아 우는 남자들”이라며 10분 만에 다른 남자들을 유혹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 발표된 원더걸스의 〈So Hot〉은 “I'm so hot 난 너무 예뻐요 / I'm so fine 난 너무 매력 있어 / I'm so cool 난 너무 멋져”라며 외모적인 자신감을 드러냈다.

4세대 아이돌 그룹으로 불리는 IVE, LE SSERAFIM 등이 이러한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LE SSERAFIM의 〈FEARLESS〉에는 “내 흥집도 나의 일부라면 / 겁이 난 없지 않지”라는 가사가 담기며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는 메시지가 전달됐다. 김현식 문화평론가는 “포미(FOR ME)족 등 나를 이해하고 자기 보상이 강하며 가치 실현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진화해왔다”며, “우리라는 표현도 '나'로 바뀌는 등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자기애를 드러내는 음악이 대중음악 속 하나의 주제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한다. 미모 대중음악평론가는 “1990년대부터 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가진 노래들이 사랑 노래와 같은 음악의 기본적인 주제가 됐다”며, “한국 대중음악 시장과 이를 소비하는 한국 사회의 특징적인 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순간 치열한 경쟁을 겪어내는 현 청년층의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됐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황은지(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교수는 “음악에서 드러나는 자기애적 성향을 선호하는 양상은 도피처를 찾고 자신을 다잡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해석했다. 이어 권 전임 연구원은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아실현을 억압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싶은 욕구는 2000년대 대중음악의 중요한 동력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편집자주>

세상의 굼직한 변화는 대개 언론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주체는 심중팔구 '기자'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현장에 빠르게 달려가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해 세상을 향해 소리치는 기자는 과연 누구인가. 여기, 노동 문제를 치열하게 탐구해 온 기자가 있다. 한성대학교 학보사를 거쳐 인터넷 신문사 '프레시안'의 편집국장이 된 한성대신문사 26기 허환주(43)다.

그는 대학에 입학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학보사 생활을 했다. 대학 생활 대부분을 학보사에 쏟아부었던 그는 기자 활동으로 하여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약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라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꿈꾸는 작은 변화를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달리는 기자가 됐다.

꿈을 향한 확실한 목표만 있다면 그 어떤 배경도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하는 그는 누구보다 뚜렷한 소신으로 업을 이어간다. 인터뷰를 위해 만난 그는 종종 찾아오는 회의감 속에서도 여전히 '팩트'가 가진 힘을 믿으며 약자를 위해 묵묵히 전진하고 있었다.

박희진 기자 fur1120@naver.com



사진: 김기현 기자

# 글에 대한 호기심이 사람을 향해 번지기까지

## 프레시안 편집국장 허환주(국문 01) 동문

“당구도 치고 테크노바(technobar)도 다녔어요.” 그는 대학 입학 이전 소위 ‘놀이 먹던 사람’이었다. 학창 시절 뚜렷한 목표가 없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남들이 다 간다는 이유로 대학을 진학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3년을 무작정 놀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대학생활을 하는 주변 친구들이 눈에 밟혔다. 삶에 대한 고민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대학 진학을 결심하게 됐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학했다면 98학번이어야 하는데, 뒤늦게 수능을 치르고 입학해 01학번이네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다시 수능을 보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정말 놀기만 했어요. 노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고민이 생기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글을 써보면 어떨까’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글을 쓰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니, 글을 제대로 배워보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는 글을 쓰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더해 글을 통해 생각을 확장시키고, 생각의 마중표를 찍어보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입학한 대학 속 수많은 단체 중 글을 배우기에 적합한 곳은 학보사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활동을 시작했다. 학보사는 그가 글에 대해 첫걸음을 떼는 출발 지점이었다.

허 편집국장의 대학생활은 한성대신문사 그 자체였다. 취재부, 사회부, 학술부, 문화부로 구성된 신문사에서 그는 취재부와 사회부 기자로 활동했다. 인력난이 심해 신문을 한 번 발행할 때마다 원고지 기준 120매(약 2만 4천 자) 정도를 써 내려가기도 했다.

“저에게 한성대학교는 한성대신문사였어요. 당시에는 수습기자 1년, 정기자 1년, 부장기자 또는 편집국장 1년으로 임기가 구성돼 있어 총 3년을 활동했어요. 저는 편집국장까지 했죠. 매일 먹고 자면서 기사 쓴 기억밖에 없어요. 사람이 부족하니 수업은 거의 못 듣고 학보사에서 살았죠. 후배들이라도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저까지 강의실에 가면 서로 만나는 시간이 거의 없어지니까요.”

3년의 고생은 결코 헛되지 않은 듯하다. 기자가 되기로 한 결심이 수많은 취재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다. 현장 취재를 하며 대중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게 된다면 일련의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믿으며 기자의 꿈은 점차 커져갔다. 그는 어떤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 여부는 인식 여부와 무관하지 않다고 여겼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회의 여러 사안을 대중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렇게 그는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학보사 활동을 마친 이후 군복무를 이어갔고, 제대 후 본격적인 진로 고민과 탐색의 기회를 가졌다. 때마침 '오마이뉴스'의 대학생 인턴기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해 활동을 시작했다. 기자라는 직업이 자신의 적성에 부

합하는지, 그리고 자질은 충분한지 검증해보기 위한 단계였다. 최종적으로는 2009년 1월부터 프레시안에서 일을 시작했다. 한정된 지면에 기사를 담아야 하는 신문보다 분량에 비교적 제한이 없는 인터넷 신문사의 특징을 장점으로 여겨 프레시안에 문을 두드린 것이다.

“4학년 여름방학부터 계속 인턴 활동을 하던 중에 오마이뉴스에서 공개 채용이 진행됐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인턴을 그만두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 후에는 ‘민중의 소리’라는 매체에서 2년 가까이 일을 했고, 그때까지의 포트폴리오를 제작해 프레시안으로 이직했죠.”

그는 사회와 노동에 관심을 쏟으며, 발로 뛰어 현장에 직접 방문한 내용을 담아내는 르포르타주(reportage) 기사를 많이 작성하는 기자다. 날 것의 사실이 쫓겨나는 현장에서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기사에 담아내기 위함이다. 허 편집국장은 학보사 활동을 했던 대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한다. 그는 사회적 약자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모두가 하기 싫어하지만, 모두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사회 속 인간은 대부분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노사(勞使) 간의 분명한 대립점이 노동자에게는 상당히 기울어진 언덕이예요. 부당한 노동의 조건과 상황 등에 관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세상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 믿어요.”

그가 취재와 기사 작성에 있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취재원의 보호’다. 취재원이란 기사 재료의 출처가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보호 대상이 되는 취재원이란 기사를 작성하며 만나는 수많은 ‘사람’이다. 기사를 통해 불러오는 공익이 크더라도 취재원의 삶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면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최우선 원칙이다. 허 편집국장은 아무리 대의를 위한다고 한들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다치거나 희생되는 일은 그 자체로 잘못됐다고 강조한다.

“기사를 쓸 때 취재원이 다칠까 항상 염려해요. 간혹 취재원을 속여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도 존재해요. 이를테면 실명을 노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공익이라 할지라도 취재원의 삶이 파괴된다면 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허 편집국장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 역시 취재원이다. 주로 취재했던 이들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 피해자와 같은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겠다는 굳센 다짐으로 일해 왔다.

“기사 자체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도, 판을 바꾸지도 못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나는 이 자리에 서서 당신들이 입을 여는 동안에 떠나



사진 제공: 허환주

▲2015년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허환주

지 않겠다’와 같은 맹세를 해요. 그저 위모가 되고 싶은 것일 수 있죠.”

대의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그는 취재한 기사를 바탕으로 책도 저술한 바 있다. 『현대조선전후사』, 『열여덟, 일터로 나가다: 현장 실습생 이야기』, 『라이더가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어떤 편한 세상에 대하여』 등이다. 모두 산업재해에 관한 이야기다. 기사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말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 책을 집필했다. 그는 씨줄과 날줄로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진 사회, 그리고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는 단순히 개인이나 조직의 잘못만으로 발생하지 않음을 피력한다. 예를 들어 흔해진 현 사회에서 노동자의 사망에는 사회 자체의 문제가 기인했다는 말이다. 다양하게 얽혀있는 이야기 하나하나를 전달하기 위해 그에게는 ‘책’이 필요했다.

“기사는 육하원칙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누가, 어떻게, 왜 피해를 입게 됐는지를 설명해요. 저는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해 남겨진 유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전하고 싶었어요. 가족이 아침에 출근했는데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은 너무나 큰 일이니까요.”

2009년 입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와 2023년 1월, 프레시안의 편집국장 직을 임명받은 그는 회사 자체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자신이 하나의 매체라고 생각했던 기자 시절과 달리, 편집국장이 되자 회사 전체가 자신의 브랜드가 된 기분이라고 전한다.

“이제는 편집국장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자 업무보다는 조직 운영이나 기사의 방향과 같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미디어가 발달하며 이른바 ‘유사언론’이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의미 있는 기사를 배출하고 대중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요.”

글이 쓰고 싶어 대학에 진학했던 그는 한성대학교 학보사의 학생기자 활동을 기점으로 꿈을 찾아 어느새 프레시안의 편집국장이 됐다. 허 편집국장은 기자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구체화 하는 단계를 밟아나가라고 당부했다.

“학벌 같은 배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잘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뽑내는 방식을 고민해야 해요. 단순히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남들과 경쟁해서 나의 무기는 무엇인지 판단한 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히 기사를 읽어 나갈 만큼 좋아하는 기사를 찾는 거예요. 그 기자가 어떻게 기사를 쓰는지 꼭 지켜보면서 취재 방식 등 궁금한 점이 생기면 이메일도 보내볼 수 있겠죠.”



사진 제공: 허환주

▲오마이뉴스 대학생 인턴기자 활동 당시 강원도 인제군 수해 현장을 직접 찾은 허환주



사진 제공: 허환주

▲플랫폼 노동을 취재하며 직접 배달 노동을 하고 있는 허환주

세상을 글쓴이 그날

# 창문 앞에서 전쟁터까지 : 유럽 종교전쟁의 흐름



**1517.**  
마틴 루터,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95개조 반박문' 게재

**1526.**  
페르디난트 1세, 보헤미아 국왕으로 즉위  
(합스부르크 가문의 보헤미아 통치 시작)

**1536.**  
장 칼뱅, 『기독교 강요』 출판

**1555.**  
아우크스부르크 회의

**1575.**  
루돌프 2세, 보헤미아 국왕으로 즉위

**1609.**  
루돌프 2세, '종교 자유에 대한 칙서' 반포

**1617.**  
페르디난트 2세, 보헤미아 국왕으로 즉위

**1618.**  
제2차 프라하 창밖 투척사건  
(30년 전쟁 발발)

**1619.**  
페르디난트 2세, 신성 로마 황제로 즉위  
팔츠 선제후 프리드리히 5세,  
보헤미아 국왕으로 즉위

**1620.**  
프리드리히 5세, 보헤미아 국왕에서 폐위

**1625.**  
덴마크, 30년 전쟁 참전

**1630.**  
스웨덴, 30년 전쟁 참전

**1635.**  
프랑스, 30년 전쟁 참전

**1648.**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30년 전쟁 종결)

언제나 큰일은 작은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나비의 날갯짓이 일으킨 바람이 지구의 다른 어딘가에서 폭풍을 일으킨다는, 나비 효과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는 세계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역사 교과서 한 페이지를 빼곡히 채울 만한 큰 사건이 촉발된 것도 교과서 가장 자리에 손톱만 한 글씨로 설명돼 있는 작은 사건이 도화선으로 작용했기에 가능했다.

약 400년 전에 누군가를 창밖으로 던져버린 사건이 한 제국을 거대한 전쟁의 수렁으로 몰아넣은 일만 봐도 알 수 있다. 17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제2차 프라하 창밖 투척사건', 그 사건이 낳은 '30년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자.

두 사건을 파악하려면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6세기 유럽에는 종교개혁의 바람이 몰아닥치고 있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하고, 당대 로마 가톨릭의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고 나서며 시작됐다. 1536년에는 장 칼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편찬하며 로마 가톨릭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루터를 따르는 '루터파', 칼뱅을 지지하는 '칼뱅파'가 나타났고, 이들이 만든 새로운 기독교를 '개신교'라 부른다.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은 대립하기 시작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권위를 재확인하며 자신들이 '정통파'임을 강조했고, 루터파와 칼뱅파를 포함한 신교 세력은 로마 가톨릭의 탄압에 맞섰다.

그러다 1555년, 구교와 신교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아우크스부르크 회의'가 맺어졌다. 회의(和議)는 화해를 위한 의논을 말한다. 아우크스부르크 회의를 이해하려면, 현재의 독일 지역에 위치했던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신성 로마 제국은 여러 개의 제후국과 도시로 이뤄진 국가였다. 제후는 신성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고 제국에 소속돼 있는 대신, 황제에게 땅을 하사받는다. 제후는 하사받은 땅인 '영지' 내 백성에게 대한 지배권을 가졌다. 또한 신성 로마 제국에는 7명의 선제후가 있었는데, 이들은 신성 로마 황제에 대한 선출 권한을 가졌다. 아우크스부르크 회의는 당시의 신성 로마 황제 카를 5세와 제국 내 신교 세력을 구성하는 제후들 간에 맺어진 강하다. 이 회의의 핵심은 '제후가 믿는 종교가 곧 영지 전체의 종교'라는 원칙이다. 회의 내용은 백성이 제후의 종교가 싫다면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포함했다. 다만 이 회의에 참가한 제후들은 모두 루터파를 선택했고, 단 한 사람의 제후도 칼뱅파를 택하지 않았기에 루터파만이 기독교의 공식 교파로 인정받게 됐다. 칼뱅파는 여전히 로마 가톨릭 세력의 탄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던 것이다.

신성 로마 제국의 주요한 제후국이었던 '보헤미아 왕국'에서도 신교에 대한 탄압이 벌어졌다. 보헤미아는 루터의 등장 이전부터 로마 가톨릭의 개혁을 외치다 화형당한 안 후스의 전통이 있던 곳이었다. 그렇기에 보헤미아 귀족들은 칼뱅파를 포함한 다양한 신교를 수용했다. 1526년부터 이곳을 다스리기 시작한 '합스부르크 가문'은 통치 시작 시기부터 '재가톨릭화 정책'을 펼쳤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로마 가톨릭을 신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스부르크 가문으로 세 번째 보헤미아 왕

이 된 루돌프 2세는 보헤미아 귀족들과의 충돌을 우려해 '종교 자유에 대한 칙서'를 반포했다. 황대현(목원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해당 칙서에는 보헤미아인들의 자유로운 예배 허용, 특정 지역 내 개신교 교회 설립 허용 등 '신교를 믿을 자유'가 규정됐다"고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나 루돌프 2세의 뒤를 이은 마티아시 2세와 페르디난트 2세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특히 로마 가톨릭 소속의 수도회인 '예수회'의 학교에서 교육 받으며 자라난 페르디난트 2세는 이전보다도 강력한 신교 탄압을 일삼았다. 개신교 교회를 폐쇄하거나 파괴하고, 개혁교회 지도자를 감옥에 가두기도 했다. 황 교수는 "페르디난트 2세의 탄압에 대처하기 위해 보헤미아 귀족들이 모임을 가졌으나, 페르디난트 2세는 이러한 모임마저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보헤미아의 귀족들은 무자비한 탄압에 결국 프라하의 왕궁, '흐라드신 궁'으로 몰려갔다. 그들은 루돌프 2세가 반포한 종교 자유에 대한 칙서의 엄격한 시행을 요구했다. 페르디난트 2세 본인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세습영지인 오스트리아 빈의 '호프부르크 궁'에 머무르고 있었기에, 흐라드신 궁에는 페르디난트 2세 대신 그의 섭정관과 서기관이 있었다. 섭정관은 귀족들의 요구를 묵살했고, 화가 난 귀족들은 결국 섭정관과 서기관 등 3명을 궁 창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이것이 1618년의 '제2차 프라하 창밖 투척사건'이다. 20m 높이에서 떨어진 세 사람은 크게 다쳤지만, 목숨은 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합스부르크 가문과 신교 세력은 전쟁을 시작했다. 프라하에서의 사건이 길고도 지리한 '30년 전쟁'의 직접적 요인이 된 것이다. 4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는 30년 전쟁의 첫 번째 시기는 '보헤미아-팔츠 전쟁'이다. 이미 전쟁이 벌어진 와중인 1619년에는 페르디난트 2세가 신성 로마 황제로도 선출된다. 같은 해 겨울에는 보헤미아 귀족들에 의해 페르디난트 2세가 보헤미아 왕위에서 쫓겨나고, 프리드리히 5세가 새 왕으로 즉위한다. 프리드리히 5세는 제국 내 다른 제후국인 '팔츠 선제후국'의 선제후였으며, 팔츠 선제후국은 칼뱅파가 다수인 곳이었다. 왕국에서 자신의 지위를 보다 확고히 하고자 했던 프리드리히 5세는 보헤미아-팔츠 연합군을 이끌고 페르디난트 2세의 황제군과 싸웠으나, 빌라 호라 전투 등에서 패배한다. 이 전쟁 이후 프리드리히 5세는 왕위직과 선제후직을 모두 박탈당하고 네덜란드로 망명하며, 페르디난트 2세가 다시 보헤미아의 왕을 겸직한다. 황 교수는 "신성 로마 제국 내 개신교 세력의 군사 동맹체인 '개신교 연합'의 수장이 프리드리히 5세였기 때문에, 보헤미아인들은 그를 새로운 국왕으로 옹립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리드리히 5세는 1619~1620년의 겨울 동안만 보헤미아 왕을 지냈기에 '겨울왕'으로 조롱당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웃나라인 덴마크가 제국 내 신교 세력을 돕기 위해 전쟁에 가세한다. 그러나 덴마크 역시 황제군에 패하게 되고, 이 시기를 '덴마크 전쟁'이라고 일컫는다. 로마 가톨릭 세력의 승리였다.

세 번째 시기인 '스웨덴 전쟁'부터는 종교적 열정과 더불어 정치적 입지 또한 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다. 페르디난트 2세는 제국 내의 '말 안 듣는' 제후국뿐 아니라 이웃나라까지 찍어 누름으로써, 합스부르크 가문이 제국을 독점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자 그는 유럽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많은 국가가 면하고 있는 발트 해에 함대를 만들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외적 팽창을 표명했다. 이에 맞서 합스부르크 가문,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이 유럽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일은 보고 싶지 않았던 주변국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프랑스로부터 군비 지원을 받은 스웨덴이 먼저 제국을 공격했고,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스웨덴의 왕 구스타프 2세 아돌프가 전사한 이후 스웨덴과 신교 세력의 전력이 급격히 감소했고, 최종적으로는 황제군에 패배했다.

1635년에는 프랑스가 참전하며, 30년 전쟁의 마지막 시기인 '프랑스 전쟁'이 벌어졌다. 군비 지원 등 물밑에서 신교 세력을 돕던 프랑스가 직접 나선 것이다. 프랑스는 합스부르크 가문처럼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는 국가임에도, '신성 로마 제국의 패권 장악 저지'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신성 로마 제국에 맞서 싸웠다. 교파를 초월한 군사동맹의 현실화였다. 프랑스는 참전 초기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다, 1640년대에 이르러 승전을 거두기 시작했다. 결국 열세를 띠게 된 합스부르크 가문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하며 전쟁을 마무리한다.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칼뱅파도 기독교의 공식 교파로 인정받았고, 제후가 자신의 영지 내 백성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국들은 제국에 적대적이지 않은 선에서 독자적인 외교권, 조약 체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등의 변화가 이어졌다. 황 교수는 "과거에는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국제관계에서 주권원칙이 확립되고 근대적 주권국가 등장했다는 것이 정설로 통용됐었다"면서도 "제국에 적대적이지 않은 한에서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제약이기에, 베스트팔렌 조약을 주권국가의 태동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최근의 흐름을 설명했다.

특정 지역에서 벌어진 종교 갈등이 유럽 세계에 영향을 미친 전쟁으로 확대된 과정이 눈앞에 그려지는가? 이렇듯 하나의 작은 일은 거대한 사건을 낳는다. 과거 없는 현재는 없고, 현재 없는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사가들은 이 시기 종교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건 간의 흐름을 주목하며 종교전쟁이 그 다음 시대의 유럽에 미친 영향, 그로 인해 일어난 또다른 역사적 사실 등에 주목한다. 안상준(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종교전쟁 중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보다는, 종교전쟁이 유럽 사회의 근대화 미친 영향에 주목한다"며 "종교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유럽인들은 갈등을 다루는 방법을 터득했고, 이후의 유럽 사회는 법적·외교적 해결 방안을 발달시키며 근대화에 다가갔다"고 전했다.

\*면벌부 : 가톨릭 교회가 신자에게 벌을 사면해 주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중세 말 유럽에서 금전적 목적으로 남용돼 비판받음.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한성대신문〉이 빠르게 돌아와 있다. 작년보다 수업 방식이 대면으로 조금씩 전환되면서 생긴 꽤나 반가운 변화였다. 이번 학기는 모든 학생이 등교해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더욱 기대된다. 하지만 마냥 기뻐하기에는 찝찝함이 불쑥불쑥 고개를 내민다. 개강을 앞두고 고민거리가 늘어난 학생도 분명 있을 테니 말이다. 그중에서도 인간 생활의 3대 요소인 의(衣)·식(食)·주(住)에 대한 고민을 가진 청년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다가왔다.

본교 기숙사 입주자가 발표되던 당일, 학내 커뮤니티에는 불합격한 학생들의 염려가 담긴 글들이 올라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등장하기 전처럼 대면수업이 주를 이룬 올해의 상상빌리지 정규모집 경쟁률은 남녀평균 2.43:1을 기록했고, 삼선학과와 우촌학사 역시 정규모집에서 각각 2.07:1과 1.52: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원한 학생의 절반가량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는 해석을 가능케 해준다. 기숙사 입주에 실패한 학생들은 급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모색했을 것이다.

비단 본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2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의 기숙사수용률은 23.1%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18.4%가 도출됐다. 10명의 학생 중 기숙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명 내외라는 이야기다.

물론 광역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재경기숙사',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행복기숙사',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생 연합생활관' 등이 존재해 주거가 만족스러운 학생도 분명 있을 것이다. 다만, 이마저도 연이 달지 않은 학생은 대부분 원룸에서 월세와 관리비 등을 부담하며

생활해야 한다. 실제로 2021년 기준 가구수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가구의 81.6%는 임차로 거주 중이다. 일정 수입이 없는 학생이 학업과 동시에 월세 등의 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청년 주거 사안은 꿈은 대로 높은 문제 중 하나다. 국가에서 기숙사 형태뿐만 아니라 청년주택 등을 공급하는데도 힘을 쏟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청년을 위한 듯한 이러한 정책에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바로 '최저 주거기준'이다. 2011년을 끝으로 10년 넘게 개정되지 않고 있는 법에서 정한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은 부엌과 화장실을 포함해 14㎡(약 42평)이다. '원룸'이라고 불리는 주거지는 대부분 이 기준대로 4평에서 5평 사이다. 대다수 대학생이 거주하는 원룸이 4평, 혹은 5평 정도의 규모라는 점에서 최저 주거면적은 평균 주거면적이 돼 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히 이런 방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청년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심지어 이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인 이들도 있다. 2021년 기준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 가구는 7.9%였다.

여기서 근본적 물음은 '과연 현재 최저 주거기준이 국민의 주거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적절한가'이다. 이제는 청년 주거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할 때다. 몸 하나 누울 수 있는 공간만 공급해대지 말라는 이야기다. 어떻게 하면 청년이 방 한 칸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어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5평조차 되지 않는 방 한 칸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나요? 이 질문이 시작이다.

한혜정 편집국장



### 김기자의 시선

## 지구촌 이웃을 위한 움직임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오전 4시경, 규모 7.8의 강진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쳤다. 이후 7.5 규모의 지진 등 수십 차례 이상 여진이 발생해, 최소 4만 7,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순간에 가족, 지인과 생이별하고 삶의 터전마저 잃은 이들에게 전 세계가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한용 의류, 취침용품, 위생용품 등 긴급 구호 물품의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 하루빨리 양국이 일상을 회복해, 두 국가 속 별처럼 다시금 반짝이길 바란다.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 기자수첩

## 세상을 향한 아주 작은 날갯짓

학보사 활동 중 보게 될 마지막 수습기자 모집 공고를 보니 필자가 제50기 수습기자에 지원했던 2021년 2월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고등학교 교직원집회 시절 기사 끄머리에 작게 쓰여 있는 담당 기자의 이름과 이메일인 '바이라인'이 멋있어서 기자란 직업을 꿈꿨다. 기자가 되겠다는 결심은 필자가 학보사에 지원하기에 충분하고도 유일한 동기였다.

부장기자가 된 후 하나의 코너를 맡아 연재할 수 있게 되자 고민이 깊어졌다. 그 때 청년의 시선에서 소외된 청년을 바라본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고 싶었다. '청년 고독사', '영 케어'로 불리는 청년 간병인, '미혼부·모', '청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문대학' 등의 주제를

선정한 이유다. 사회에서 소외된 청년들이 비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당 코너명을 '비행(飛行)청년'이라 이름 붙이기도 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 대해 취재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깨달았다.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전문가들이 적어 취재에 난항을 겪기도 부지기수였다. 또한 청년 고독사와 영 케어의 경우 정월부터 명확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통계자료도 전무했다. 당연히 정책은 미흡했다. 정책이 존재하더라도 신청 방법이 복잡하거나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많았다.

그럼에도 기사를 통해 소외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렸다는 사실이 뜻깊었다. 아직 학생인 대학 신문의 기자이기에 문제

들의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촉구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위기를 주제로 작성한 기사를 읽은 후, 대학 사회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는 독자의 연락을 받고 목표가 생겼다. 비록 지금은 소수의 독자일 지라도 미래에는 많은 이들의 생각을 바꾸리라 다짐했다.

사회 속 소외된 청년의 현실을 직접 목도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 학보사에 감사를 표한다. 이러한 귀중한 경험은 훗날 기자가 되지 않더라도 필자의 자양분이 되리라 생각한다. 남은 한 학기의 임기 동안, 단 한 명의 독자라도 필자의 기사를 읽고 소외된 청년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 낙산에 올라

## 영화 <다음 사회>가 지닌 가치

여기 우리가 꼭 봐야 할 영화가 있다. 2월 8일 개봉한 정주리 감독의 영화 <다음 사회>다. 특성화고 3학년 소희(배우 김시은)가 콜센터 현장실습을 나가며 겪게 되는 문제들로 인해 자살하고 그런 소희의 행적을 좇으며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 유진(배우 배우 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관객들은 씩씩하고 당찬 성격의 소희가 감정노동과 과도한 업무량, 급여문제 등으로 점차 좌절하고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하지만 이 영화는 단순히 한 소녀의 개인사를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점을 낱알이 파헤치는 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소희를 방관하고 외면하다 결국은 책임을 회피하는 많은 어른이 나오

에도 불구하고 영화 <다음 사회>는 특정 인물을 악으로 설정해 비판하지 않는다. 극이 진행될수록 악역으로 보이던 인물들도 결국은 잘못된 사회적 구조 속에 놓여있는 보통의 사람들임을 느낄 수 있다.

영화에는 취업률을 위해 학생들을 위협한 일터로 내모는 특성화고와 현장실습생을 고용하는 직장, 그러한 실태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교육부의 모습이 등장한다. 실상은 영화와 그리 다르지 않았다. 이 영화는 2017년에 발생한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영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영화를 통해 즐거움과 작은 행복을 전하는 것도 가치 있지만 알지 못했

던 사건을 더 많은 이가 알게 하는 것,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또한 영화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그것이 영화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중 하나임을 영화 <다음 사회>는 우리에게 보여준다.

한 영화가 많은 것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영화를 본 자는 소희를 기억한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무너진 공정의 지붕 아래에서, 무서워하던 물속에서, 시끄러운 기계 속에서 쉬이 침춘이 쳐버리는 일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자. 다음 사회가 나오지 않도록 많은 상업영화 사이에서도 꿋꿋이 버티는 <다음 사회>를 열렬히 응원한다.

김다인(인문 2)

### 의화정

## 3·1운동 104주년을 맞아

이번 3월 1일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4주년이 된다. 3·1운동은 기독교·천도교·불교의 주도로 시작되었지만 남녀와 노소, 신분과 계층, 종교와 사상의 구별 없이 거의 전 민족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3·1운동 후 우리 민족은 상해에서 임시정부, 연해주에서 대한국민의회, 국내에서 한성정부를 수립하고, 1919년 9월 이 셋을 합하여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3·1운동 후, 우리 민족은 '독립' 혹은 '민족해방'을 위해 대동단결과 민족통합을 수없이 목이 터지게 외쳤지만, 지역·종교·계층·사상·이념의 대립과 갈등으로 단결과 통합의 꿈은 실현하지 못하였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동족상잔으로 인해 남과 북이 두 체제의 국가로 분열되었고, 현재의 대한민국도 지역·계층과 정권·이념의 차이로 첨예하게 대립·투쟁하기도 한다.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우, 1920년 초부터 이승만의 위임통치론 주장과 의

교운동론으로 북경 등지의 제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그 원인이 독립운동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지만, 사실은 계층 간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1923년 국민대표회의 시 임시정부를 새롭게 연해주 등지에 수립하자고 주장한 창조파는 국민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국호를 '대한민국'에서 '한국'으로 변경하였다. "국가라는 것은 백성(民)만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왕실세력과 사족세력의 '대한민국' 국호에 대한 불쾌감의 표현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이승만(갑리교), 국무총리 이동휘(갑리교), 노동국 총관 안창호(장로교)가 물러나고,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대통령과 국무령에 선임된 인물이 유학자와 양반지배세력 출신인 백암 박은식과 석주 이상룡이었다는 점도 계층 간 갈등의 또 다른 증거다.

1920년대 국내에서는 자유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대립하였다. 자유주의 세

력은 미국과 일본 등과 해양 세력과 관계를 맺고 자본주의사회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반면에 사회주의 세력은 대륙 세력인 소비에트 러시아 등과 관계를 맺고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이 두 세력은 각기 다른 정치사회관을 조화롭게 수정하려는 노력보다,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 입각한 민족통합을 추구하였다. 그러다 보니 다른 한쪽을 친일파·반민족주의자 또는 국제주의자·비민족주의자로 공격하며 배제하였다.

우리 대학생은 한국인과 한민족의 지도자이다. 좋건 싫건 앞으로의 국민통합, 남북통일, 민족화합은 대학을 졸업한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숭고한 사명이다. 국민통합과 민족통합이란 구호만 외치며 권력과 이익을 독점하려 한 선생(先生)과 달리, 여러분은 구성원이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기준과 조건을 만들어가는 가의(可畏)의 후생(後生)이 되길 기대해본다.

조규태(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 기자사령

퇴 정기자 송성욱(사회과학 2)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한성대신문사(내선 4186)로 문의바랍니다.

# 한성을 나아가게 할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 한성대신문사에서 제54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본교 재학생(학번/전공/성별/주·야간 무관)
- 4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우대

### 주요 활동

- 아이템회의
- 취재원 권택
- 인터뷰 및 사진 촬영
- 레이아웃 디자인
- 초고 작성 및 퇴고
- 교정 및 조판
- 배부 및 기사 업로드
- 평가회의

### 지원방법

교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 활동지원

- 학기당 비교과 포인트 100pt 지급
- 원고료 및 활동비(장학금) 지급
- 정기자 진급 시 명함 및 기자증 발급
- 개인 사무실 책상 및 PC 제공
- 사물함·복합기 등 무료 사용
- 교내·외 기자교육 프로그램 지원
- 일간지 및 주간지 제공
- 퇴임 시 활동인증서 발급
- 편집국장 진급 시 총장공로상 추천

### 모집기간

3월 5일(일) 23시 59분까지

### 문의사항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 인스타그램 @hansungnews
- 페이스북 @hansungpresscenter



공지사항 바로가기

